

# KRIVET Issue Brief

2013

41호

발행인 박영범 | 발행일 2013년 12월 15일 | 발행처 한국직업능력개발원

## 일반대학원 석사학위의 경제적 효과

- 신규 채용 시 대졸 인력과 석사 인력을 구분하는 기업은 43.5%, 신규 채용된 석사 인력의 경력을 2년 이상 인정해 주는 기업은 40.1%, 재직 중 석사학위 취득 시 승진소요연수가 단축될 수 있는 기업은 33.0%에 불과함. 이는 석사학위보다 노동시장 경력을 더 중요시함을 의미
- 석사 인력의 희망임금은 월평균 300만 원이나 실제 받는 임금은 270만 원으로 30만 원이 더 낮으며, 석사 졸업 재직자의 절반 이상이 석사수준을 요구하지 않는 업무를 담당함.
- 비수도권 대학 출신이 비수도권 대학원에 진학하지 않고 수도권 대학원에 진학한 경우 구직기간은 1.2개월 짧지만 월평균임금은 11만 원 낮아 학벌이동의 실익이 없음.
- 석사 졸업 재직자는 석사학위가 학문적 성장(3.93점), 자기만족(3.85점) 측면에서는 효용성이 높으나 취업력 제고(3.47점), 소득 증대(3.32점) 측면에서는 효용성이 낮다고 평가하여 석사학위의 경제적 효과는 크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음.
- 기업의 석사 인력에 대한 평가는 석사 인력 본인의 평가보다 대체로 낮음. 특히 대인관계능력에 대한 평가가 가장 격차가 큼.

### 01 분석의 필요성 및 분석 자료

#### | 대학원 교육의 확대와 석사과정 대학원생의 진로에 대한 관심 부족

- 최근 들어 일반대학원 석사과정생의 졸업 후 진로는 박사과정 진학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'학문 지향적' 성향보다 노동시장으로의 진입을 목표로 하는 '비학문 지향적' 성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음.
- 그러나 현재 석사과정 대학원생의 진로는 교수만의 책임, 혹은 대학원생 스스로 알아서 해결할 문제로 간주되어 대학원 과정 졸업 후 진로나 취업은 관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.
- 교육-고용 연계의 관점에서 석사 졸업생의 취업 실태와 기업의 석사 인력 활용 실태를 파악할 필요가 있음.

#### | 분석 자료

- 분석 자료: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'기업의 일반대학원 석사 인력 활용 실태 조사(2013)'와 '일반대학원 석사 재직자의 교육 및 직장생활 실태 조사(2013)'
  - '기업의 일반대학원 석사 인력 활용 실태 조사'에 참여한 사업체는 324개사로 중소기업(300인 미만) 85.5%, 대기업(300인 이상) 14.5%
  - '일반대학원 석사 재직자의 교육 및 직장생활 실태 조사'는 '기업의 일반대학원 석사 인력 활용 실태 조사' 응답 기업의 재직자와 무작위 확률 추출을 통해 추가적으로 표집한 석사 재직자를 조사. 조사에 참여한 석사 졸업 재직자는 502명으로, 남자 303명(60.4%), 여자 199명(39.6%)임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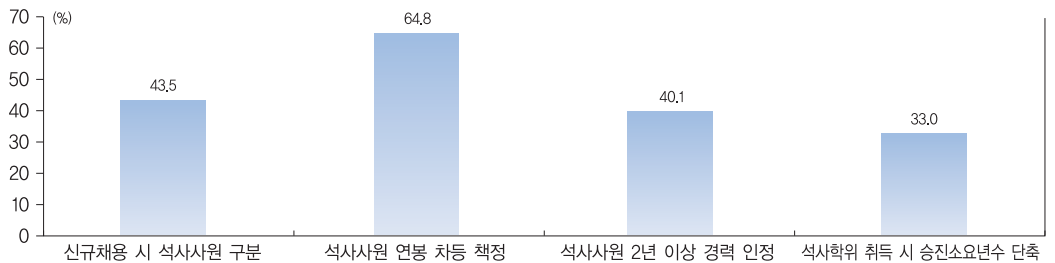


- 선망직장은 대기업과 정부기관, 공기업 및 정부 투자기관으로 정의하고 이러한 기업의 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경우 선망직장 취업자로 구분

**02 일반대학원 석사 졸업자의 채용 현황**

**| 기업은 석사학위보다 노동시장 경력을 더 중요시**

- 신규 채용 시 대졸 인력과 석사 인력을 구분하여 선발하는 기업은 43.5%에 불과함.
- 연봉 지급 시 대졸 인력과 석사 인력 간에 차등을 두는 기업은 64.8%이나 신규 채용된 석사 인력의 경력을 2년 이상 인정해 주는 비율은 40.1%에 그침.
  - 석사과정을 이수하는 데 걸리는 기간이 2년 이상임을 고려한다면, 석사과정에 소요되는 시간이 경력으로 충분히 인정받지 못함을 알 수 있음.
- 재직 중 석사학위를 취득한 직원의 승진소요연수가 단축될 수 있다고 응답한 기업도 33.0% 수준에 불과함.
- 위의 결과는 기업이 석사학위보다 노동시장의 경력을 더 높게 평가하고 있음을 시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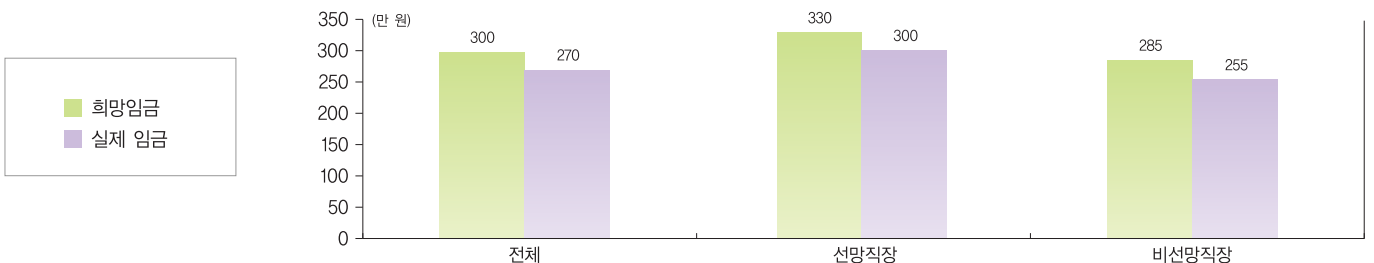


[그림 1] 석사학위 소지자 채용 현황

**03 일반대학원 석사학위의 경제적 효과**

**| 석사 졸업 재직자의 희망임금보다 실제 임금이 30만 원 더 낮아**

- 석사 졸업 재직자의 월평균 희망임금은 300만 원인 반면, 실제 받는 임금은 270만 원으로 희망임금보다 30만 원이 더 적음.
  - 선망직장 석사 졸업 재직자의 희망임금은 330만 원, 실제 임금은 300만 원이고, 비선망직장 석사 졸업 재직자의 희망임금은 285만 원, 실제 임금은 255만 원으로 실제 임금이 희망임금보다 30만 원 가량 더 적음.



[그림 2] 석사 졸업 재직자의 월평균 희망임금과 실제 임금

**| 학벌이동이 관찮은 일자리 취업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음.**

- 비수도권 대학 출신 중 수도권 대학원 졸업생이 비수도권 대학원 졸업생보다 구직기간은 1.2개월 짧으나, 월평균임금은 11만 원 더 낮고 선망직장 취업률도 차이가 없음.

- 비수도권 대학 출신 중 수도권 대학원 졸업생의 월평균임금은 255만 원인 반면, 비수도권 대학원 졸업생의 월평균임금은 266만 원으로 수도권 대학원 졸업생이 11만 원 더 낮음.
- 구직기간은 비수도권 대학 출신 중 수도권 대학원 졸업자는 8.1개월로 비수도권 대학원 졸업자의 9.3개월보다 1.2개월 짧으나 선망직장 취업률은 28.8%로 동일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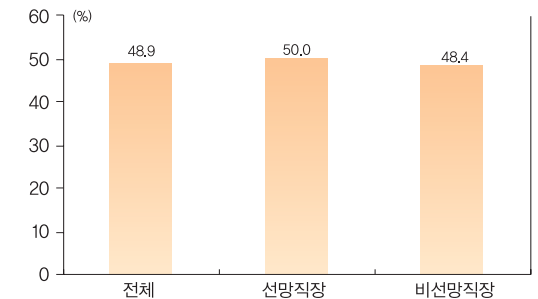
〈표 1〉 대학원 진학유형별 취업 실태

(단위: %, 만 원, 개월)

대학원 진학유형	구성 비율	월평균임금	구직기간	선망직장 취업률
전 체	100	269	8,4	33,8
수도권→수도권	40,5	277	7,7	41,2
비수도권→수도권	14,9	255	8,1	28,8
비수도권→비수도권	44,6	266	9,3	28,8

| 석사 졸업 재직자의 절반 정도가 석사 수준을 요구하지 않는 업무를 담당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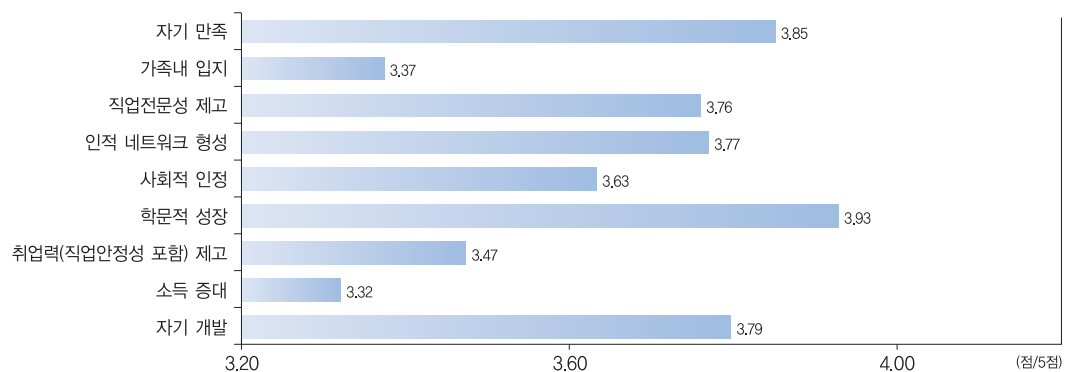
- 석사 졸업 재직자 중 현재 수행하는 직무 내용에 적절한 학력 수준이 '석사 이상' 이라고 답한 비율이 48.9%에 그침.
  - 선망직장 취업자들은 50.0%, 비선망직장 취업자들은 48.4%가 현재 수행하는 직무에 요구되는 학력 수준이 석사 이상이라고 응답함.
- 석사 졸업 재직자의 절반 정도는 실제 석사 학력 수준을 요구하지 않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.



[그림 3] 직무내용에 적절한 학력수준이 석사 이상이라는 응답비율

| 석사 졸업 재직자들은 학위에 따른 취업력 제고와 소득증대 효과가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

- 석사 졸업 재직자들은 석사학위가 학문적 성장(3.93점), 자기만족(3.85점), 자기개발(3.79점) 측면에서는 효용성이 높다고 여기나 취업력 제고(3.47점)와 가족내 입지(3.37점), 소득 증대(3.32)면에서는 상대적으로 효용성을 낮게 평가함.
  - 따라서 스펙쌓기 혹은 취업 시장 진입 유예 목적의 대학원 진학은 바람직하지 않음을 시사



[그림 4] 석사학위의 효용성

| 직장체험 프로그램 참여 경험이 괜찮은 일자리 취업에 효과적

- 직장체험 프로그램(인턴 포함) 참여 경험자의 월평균임금은 277만 원, 구직기간은 7.6개월, 선망직장 취업률은 34.5%로, 미경험자보다 월평균임금은 9만 원 높고 구직기간은 0.9개월 짧으며 선망직장 취업률은 1.2%p 높음.

- 석사과정 졸업자의 노동시장 정착을 위해 직장체험 프로그램을 비롯한 일-학습 듀얼 프로그램을 도입할 필요가 있음.

(표 2) 직장체험프로그램(인턴 포함) 참여 경험 여부에 따른 취업 실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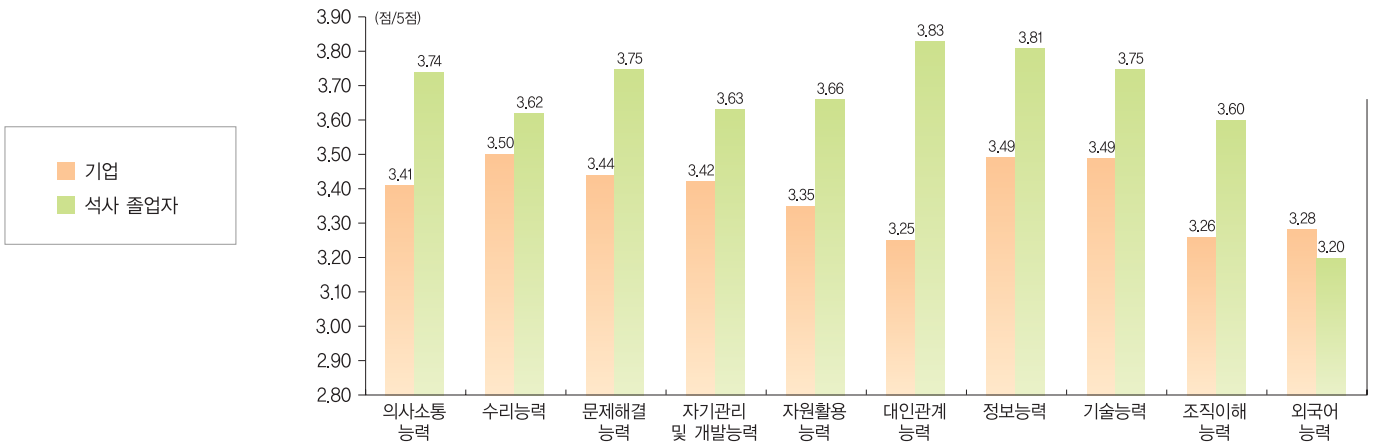
(단위: %, 만 원, 개월)

참여 경험 여부	구성 비율	월평균임금	구직기간	선망직장 취업률
전체	100	270	8,4	33,5
참여경험 없음	82,6	268	8,5	33,3
참여경험 있음	17,4	277	7,6	34,5

### 04 기업의 석사 인력 평가

기업이 평가하는 석사 인력의 수준은 석사 인력 스스로의 평가보다 낮음.

- 외국어능력을 제외한 모든 능력에서 기업의 평가가 석사 인력 스스로의 평가보다 낮음.
  - 기업과 석사 졸업 재직자 간의 평가 격차는 대인관계능력(0.58점), 조직이해능력(0.34점), 의사소통능력(0.33점), 정보능력(0.32점) 순으로 나타남.
  - 특히 기업은 채용 당시 석사 인력의 대인관계능력(3.25점)을 가장 낮게 평가한 반면, 석사 졸업 재직자는 졸업 당시 자신의 능력 중 대인관계능력(3.83점)을 가장 높이 평가하여 기업이 인식하는 석사 인력의 능력 수준과 석사 인력 본인이 생각하는 능력 간에 괴리가 있음을 시사



[그림 5] 석사 인력에 대한 직업기초능력 평가

### 05 시사점

- 석사학위 자체가 주는 경제적 효과는 크지 않기 때문에 취업 유예를 위한 도피성 진학은 자제해야 함.
- 석사졸업생들의 스스로에 대한 평가보다 기업이 바라보는 평가가 대체로 낮기 때문에 학위가 주는 후광효과에 기대기보다 본인의 역량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키는 데 주력해야 함.
  - 현장학습을 통해 직무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석사 인력에 대한 기업의 평가와 본인 스스로의 평가 간 격차를 줄이는 것이 필요
  - 직장체험 프로그램 참여자의 취업성고가 비참여자보다 긍정적이므로 석사과정에서도 일-학습듀얼프로그램을 통한 지원이 필요

양 정 승 (한국직업능력개발원 전문연구원)